



INCHEON UNITED 2023 SQUAD



조성환 감독
HEAD COACH



변재섭 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김광석 코치
COACH



김이설 GK코치
GK COACH



오지우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한운 스카우트
SCOUT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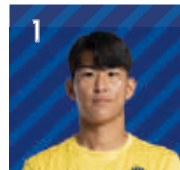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육태훈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박준성 통역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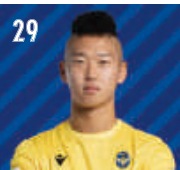
김동현
GOAL KEEPER



이태희
GOAL KEEPER



민성준
GOAL K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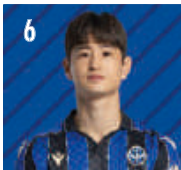
김유성
GOAL KEEPER



김연수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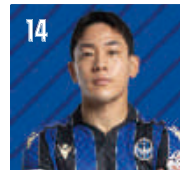
오반석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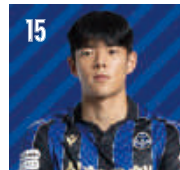
문지환
DEFENDER



강윤구
DEFENDER



정동윤
DEFENDER



임형진
DEFENDER



김준엽
DEFENDER



델브리지
DEFENDER



김건희
DEFENDER



김동민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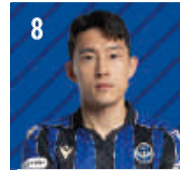
권한진
DEFENDER



이명주
MIDFIELDER



김도혁
MIDFIELDER



신진호
MIDFIELDER



박현빈
MIDFIELDER



민경현
MIDFIELDER



최우진
MIDFIELDER



김현서
MIDFIELDER



박진홍
MIDFIELDER



음포쿠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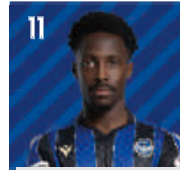
김세훈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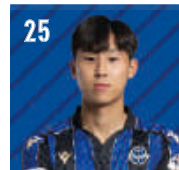
무고사
FORWARD



에르난데스
FORWARD



제르소
FORWARD



김민석
FORWARD



김보섭
FORWARD



하동선
FORWARD



홍시호
FORWARD



김대중
FORWARD



박승호
FORWARD



전성훈
FORWARD

01R	02월 25일(토) 20:30	2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2R	03월 04일(토) 14:00	3	인천 : 대전	3	인천축구전용
03R	03월 12일(일) 16:30	1	인천 : 제주	0	인천축구전용
04R	03월 18일(토) 14:00	5	광주 : 인천	0	광주축구전용
05R	04월 01일(토) 16:3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6R	04월 09일(일) 16:3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07R	04월 16일(일) 14:00	0	강원 : 인천	2	춘천송암
08R	04월 22일(토) 19:00	2	인천 : 수원FC	2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5일(화) 19:30	0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0R	04월 30일(일) 15:00	0	포항 : 인천	2	포항스틸야드
11R	05월 05일(금) 16:30	0	인천 : 수원	1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10일(수) 19:30	2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13R	05월 14일(일) 16:30	0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20일(토) 16:3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FA컵	05월 24일(수) 19:00	3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7일(토) 19:00	2	대구 : 인천	2	대구은행파크
16R	06월 04일(일) 16:30	1	대전 : 인천	3	대전월드컵
17R	06월 07일(수) 19:30	1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11일(일) 19:00	0	수원 : 인천	0	수원월드컵
19R	06월 25일(일) 16:30	0	인천 : 포항	1	인천축구전용
FA컵	06월 28일(수) 19:00	3	인천 : 수원	2	인천축구전용
20R	07월 02일(일) 20:00	1	인천 : 강원	0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8일(토) 19:00	2	수원FC : 인천	2	수원종합
22R	07월 12일(수) 19:00	1	울산 : 인천	2	울산문수
23R	07월 16일(일) 20: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24R	07월 22일(토) 19:30	0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25R	08월 06일(일) 19:0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26R	08월 13일(일) 19:30	3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18일(금) 19:30	2	인천 : 광주	2	인천축구전용
AFLD	08월 22일(화) 19:30	3	인천 : 하이퐁	1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25일(금) 19:00	1	수원FC : 인천	2	수원종합
29R	09월 02일(토) 19: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30R	09월 16일(토) 14:0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AFLD	09월 19일(화) 19:00		요코하마 : 인천		요코하마국제종합
31R	09월 24일(일) 16:30		강원 : 인천		강릉종합
32R	09월 30일(토) 19: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AFLD	10월 03일(화) 19:00		인천 : 카야		인천축구전용
33R	10월 08일(일) 15: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AFLD	10월 25일(수) 19:00		인천 : 산둥		인천축구전용
FA컵	11월 01일(수) 19: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AFLD	11월 07일(화) 19:00		산둥 : 인천		자이올림픽스포츠
AFLD	11월 28일(화) 19:00		인천 : 요코하마		인천축구전용
AFLD	12월 13일(수) 17:00		카야 : 인천		리살기념종합



vs **POHANG** PREVIEW

‘올 시즌 1승 1패’ 포항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 도전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쉽 없이 달려온 시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파이널 라운드 전까지 단 5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9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파이널 라운드의 향방이 결정된다. 인천에게 9월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인천은 7월 전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며 중위권으로 올라섰지만, 파이널 A로 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순위에 올라야 한다. 파이널 B는 6팀 중 3팀이 강등 혹은 승강 플레이오프에 향하게 된다. 더 높은 목표와 안전한 시즌을 위해서 인천은 반드시 파이널 A에 진출해야만 한다.

중요한 9월, 인천은 네 번의 경기 중 홈경기를 세 번 치를 예정이다. 9월의 첫 번째 상대는 포항스틸러스다. 포항은 K리그 최고의 전술가 중 한 명이라 불리는 김기동 감독 아래에서 올 시즌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중이다. 포항은 현재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현대보다도 적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팀으로, 종료 직전 무승부나 승리를 거두며 승점을 얻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후반 마지막까지 득점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포항 특유의 막판 집중력을 알 수 있다. 인천 역시 경기 종료 직전까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포항과의 상대 전적은 다소 아쉽다. 통산 전적과 최근 10경기 전적 모두 열세다. 하지만 올 시즌은 조금 다르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거두며 한번씩 승리를 주고 받았다. 인천은 올 시즌 세 번째로 만나는 포항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노려보고자 한다. 패배 경험이 적은 포항에게 패배를 안겨준, 그 기억을 이어가야 한다.

김기동 감독은 선수 기량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만큼

베테랑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까지 골고루 좋은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김승대 역시 '라인 브레이커'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활약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카 또한 특유의 피지컬과 스피드, 제공력으로 팀 공격의 주축이 되고 있다. 올 시즌 포항과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 인천이 패배했던 것도 김승대와 제카의 합작골 때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두 선수는 인천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오베르단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베르단은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출전한 선수로,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 역시 알찬 중원 자원이 많으며, 그에 부상에서 복귀한 신진호까지 더해졌다. 양 팀의 허리 대결도 팬들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vs **JEJU** PREVIEW

‘13경기 1승’ 제주 잡고 상위권 도약 노린다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9월의 두 번째 상대는 제주유나이티드다. 제주는 최근 13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며 흐름이 좋지 못하다. 시즌 중반 5연승을 거두고 2위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9위에 머물러있다. 10위부터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는 위치다. 아직은 10위와의 승점 차이에 여유가 있으나 계속해서 좋지 못한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강등권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수원삼성에게도 패배하고, 강원FC와도 무승부를 거두며 위기에 봉착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는 현재 중원에서 주축 선수들의 부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창민이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팀에서 이탈하고, 최영준이 개막전부터 부상을 당했으며, 중원에서 뛰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구자철까지 역시 복귀가 늦어지면서 미드필더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주는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김건웅과 임창우를 영입해 팀을 재정비 했지만, 분위기를 반전하지는 못했다. 인천은 이런 제주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야 한다. 이명주, 문지환, 김도혁과 돌아온 신진호까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중원을 갖춘 만큼 제주와의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해 승리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제주의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두 외국인 공격수의 활약은 날카롭다. 제주는 지난 시즌 공격의 중심이었던 주민규와 제르소가 이적하며 고인이 깊어졌으나, 유리 조나탄과 헤이스를 영입하며 이번 시즌 시즌을 준비했다. 두 선수 모두 K리그 1 무대 경험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걱정과 다르게 현재 두 선수 모두 무난히 K리그 1에서 적응 중이다. 유리 조나탄과 헤이스의 득점을 합치면 팀 득점의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다. 특히 헤이스는 지난 경기 인천과의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경험한 선수다. 두 선수를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이번 경기의 향방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의 상대전적은 1승 20무 19패다. 아직은 열세이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3번 승리를 거두며 점차 균형을 맞추어 가는 추세다. 하락세를 맞이한 제주와 달리 상승세를 탄 인천이다. 침체기에 들어간 제주를 상대로 인천이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vs SUWON PREVIEW

‘후반기 반전’ 수원,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 승리의 제물 될까?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K리그 1에서 쉬운 팀은 없다. 인천은 이 사실을 수차례 경험한 팀이기도 하지만, 경험하게 만든 팀이기도 하다. 생존 경쟁 때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었던 인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원삼성이 그 기적을 K리그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천이 9월에 마지막으로 만날 상대가 바로 이 수원이다.

수원은 전반기 19경기 동안 무려 14번 패배했다. 승리는 2번밖에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얼굴을 영입한 것이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7월 5경기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 전반기 19경기 동안 쌓은 승점은 단 9점이었던 것과 다르게 7월 한달 동안 승점 9점을 쌓았다.

그 중심에는 고승범과 카즈키 조합의 중원이 있다. 고승범은 경기 내내 활발한 활동량과 공격 차단 등을 보여주며 중원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다. 카즈키 또한 센스 있는 플레이와 패스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져 볼투이스 등 기존 선수들과 김주찬 등 어린 선수들까지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는 김병수 감독이 부담하며 새로운 전술을 입히고 선수들이 이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 역시 반등의 요소 중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수원은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해 있다. 최하위를 탈출하며 강등 직행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안심할 수는 없다.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바, 인천은 이 간절함에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인천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수원을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수원의 경기력이 가장 좋지 않았던 전반기에 첫 승 상대가 되어준 것도 인천이었다. 단순히 순위만을 보고 '쉬운 팀'이라 해이하게 대하는 것만큼 K리그 1에서 위험한 것은 없다.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에 있는 만큼 수원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승리를 노려야 한다.

수원과 경기의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가 될 예정이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상대는 1위 울산현대, 그것도 원정 경기다. 그렇기에 이 경기를 놓칠 수 없다. 승리하기 좋은 조건일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인천이 9월의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INCHEON UNITED F.C. 2023 MATCH SCHEDULE

H K LEAGUE1 29R vs 포항	A K LEAGUE1 33R vs 울산
H K LEAGUE1 30R vs 제주	H CHAMPIONS LEAGUE MD3 vs 산둥타이산
A CHAMPIONS LEAGUE MD1 vs 요코하마FM	A UFA CUP 준결승 vs 전북
A K LEAGUE1 31R vs 강원	A CHAMPIONS LEAGUE MD4 vs 산둥타이산
H K LEAGUE1 32R vs 수원	H CHAMPIONS LEAGUE MD5 vs 요코하마FM
H CHAMPIONS LEAGUE MD2 vs 카야FC	A CHAMPIONS LEAGUE MD6 vs 카야FC

파이널 라운드 등 이후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2003 ⚓ 2023
20 YEARS



'커리어 첫 ACL' 김동민 시민구단 ACL 최고 성적인 16강 넘어서는 것이 목표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의 첫 아시아 무대 경기는 120분의 혈투였다.

2023/24 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 베트남 하이퐁FC전에서 인천은 연장 승부 끝에 3-1로 승리했다.

힘든 승부가 끝나고 인천이 손에 넣은 것은 창단 첫 ACL 티켓이었다. 인천의 새로운 역사 그 중심에는 최후방에서 120분간 고군분투한 김동민이 있었다.

UTD기자단은 김동민과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그리고 다가올 조별리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치열했던 120분 플레이오프 혈투, 본선에서는 준비 더 잘해야

김동민은 하이퐁과의 ACL 플레이오프에

선발 출전해 120분 풀타임을 뛰며 인천 승리에 공헌했다. 김동민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팀과 경기했다. 내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플레이오프 1경기였지만, AFC 챔피언스리그가 어려운 대회라는 것을 실감했다. 본선에서는 하이퐁보다 더 강

한 상대들을 만난다. 준비를 더 잘해야 한다"라고 플레이오프 경기 소감을 전했다.

ACL 첫 경기였던 김동민에게 경기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었다. 김동민은 "경기를 분석하면서 상대 팀 정보를 얻었지만,

막상 실전에서 활용하려고 하니 어려웠다. K리그 선수들은 자주 경기를 하니까 스타일이나 전술을 아는데, 이번에는 아예 모르는 팀과 상대해야 했다. K리그보다 상대 팀 정보가 부족해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심판이 외국인이라 판정 성향을 잘 몰랐던 것이 어려운 점 중 하나였다"라고 ACL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

김동민은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선제골을 넣었던 하이퐁의 10번 유리 마무테를 지목했다. 김동민은 "하이퐁 외국인 선수들의 피지컬이 아주 좋았다. 특히, 10번 유리 마무테 선수는 웬만한 K리그 선수보다 힘이 강해서 상대하기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김동민은 K리그와 ACL 플레이오프의 차이점으로 '템포'를 들었다. 김동민은 "해외 팀과 경기를 하니 K리그와 템포가 달랐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경기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K리그는 최소한 일정한 템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템포가 빠르다. 하이퐁은 템포를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어느 시간대에는 템포가 빠르다가, 또 어떤 때에는 느려졌다. '빠르다', '느리다'라는 말보다는 '다르다'라는 말이 정확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120분간의 치열한 승부 끝에 인천은 하이퐁을 3-1로 꺾고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김동민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김동민은 "본선 진출을 해내서 기쁜 것이 첫 번째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찻찻하고, 속상한 기분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평일에, 비까지 많이 오는 날임에도 팬분들이 경기장에 많이 와 주셨다. 그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웠다"라고 답했다.

플레이오프 직후, 김동민은 개인 SNS에 베테랑이 방전된 사진을 게시해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김동민은 "몸 상태는 좋다. 그 사진은 120분 동안 혈투를 했다는 의미로 올렸다. 연장까지 뛰었고, 경기 중에 비가 와서 유니폼이 젖다 보니 몸이 무거웠다. 광주전 끝나고 며칠 안 쉬고 경기했다. 플레이오프 그 1경기엔 힘을 많이 쏟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팬들의 걱정을 불식했다.



커리어 첫 ACL,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갈 것

인천은 이제 창단 첫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향한다. 인천 입단 7년 차를 맞이한 김동민에게도 처음으로 무대다. 김동민은 "작년에 제대하고, 운이 좋게 팀이 잘 나갔다. 선수들이 잘 해줘서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었다. ACL 플레이오프라도 꼭 가고 싶었다. ACL 진출 가능성이 있는 4위를 지키기 위해 힘을 냈다.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ACL 본선에 진출해서 기쁘다"라고 ACL 본선 진출 소감을 이야기했다.

인천은 본선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산둥 타이산, 카야 FC 일로일로와 함께 G조에 편성되었다. 김동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둥, 카야 다 해볼 만한 팀이다. 요코하마가 강팀이지만, 이동거리가 짧아서 긍정적이다. 상대도 우리 정보를 잘 모른다. 준비 잘하면 16강 진출할 수 있다"라고 조추첨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김동민은 한 인터뷰에서 일본 팀과의 경기를 희망했다. 김동민의 소망대로 인천은 일본 J리그 요코하마를 조별리그에서 상대하게 되었다. 요코하마는 J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이다. 김동민은 "일본 1위 팀과 만나서 설렌다. 솔직히 요코하마가 어떤 팀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요코하마전에는 경기 준비와 상대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올해 우리는 K리그 1위 울산현대를 이겨냈다. 그래서 J리그 1위 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ACL의 매력이다. 인천도 가능하다"라고 요코하마전 각오를 밝혔다.

조별리그 3, 4차전 상대인 중국의 산둥은 마루앙 펠라이니라는 스타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다. 중앙 수비수인 김동민이 경기에 나설 경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선수다. 김동민은 "2018년 여름에 인천이 중국 산둥으로 전지훈련을 갔었다. 그때 산둥과 2번 연습 경기를 했다. 내가 센터백을 보고, 펠라이니가 공격수로 나왔다. 펠라이니 상대로 내가 헤딩을 다 뒀다. 펠라이니와 5년 만

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재미있을 것 같다. 자신 있다"라고 산둥과 펠라이니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동민은 "사람들이 키 작은 선수가 키 큰 선수한테 공중볼 경합에서 밀린다고 많이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 편견을 깨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장신인 펠라이니와의 대결에 동기부여가 클 것 같다. 펠라이니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잘 막는다면, 나에게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ACL과 같은 클럽대항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국으로 원정 경기를 치러러 가야 한다는 점이다. 김동민은 "리그에서 승점을 많이 쌓아서 파이널A 안정권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몸 관리도 더 각별해야 한다. 가장 큰 변수는 부상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리그보다 준비를 더 잘해야 한다"라고 해외 원정을 주의했다.

2023시즌도 어느덧 중후반부에 접어들었다. 김동민에게 남은 3개월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물었다. 김동민은 "챔피언스리그도 중요하지만, 리그도 중요하다. 파이널A 진출이 1차 목표다. 더 나아가 3, 4위권 이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높은 순위로 리그를 마치면 내년에도 ACL에 나설 수 있어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 시민구단 ACL 최고 성적인 16강이다. 그 기록을 깨고 싶다.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 FA컵 우승도 놓칠 수 없다. 리그, ACL, FA컵 세 마리 토끼를 전부 잡고 싶다"라고 2023시즌 하반기 목표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동민은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응원하러 경기장에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성적과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무력무력 크는 중인 민경현 팬분들의 응원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

글 = 손지호 UTD기자(thswigh50@ajou.ac.kr)



50경기 고지 오른 민경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프로에 입성한지 2년 만에 리그에서 50경기 뛰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프로 진출 첫 시즌부터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꾸준히 조성환 감독의 선택을 받은 선수가 있다. 바로 민경현이다. UTD기자단 이 민경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경현은 2022 시즌 전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신인 선수였지만 2022시즌 리그에서 30경기에 출전하며 조성환 감독

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 입단 후 두 번째 시즌인 올해 민경현은 리그에서 20경기를 출전하며 개인 통산 K리그 50경기 출전의 고지를 밟았다.

민경현은 "입단 후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다. 믿고 선택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싶다"라며 "형 들

하고 많은 경기를 뛰면서 보고 배울 점도 많았고 경기를 거듭할수록 스스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다"라고 50경기 출전 소감을 말했다.

민경현에게 꾸준히 감독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민경현은 "아무래도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한 것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어 민경현은 "매 경기 기복이 없으려고 노력했고 수비의 안정감을 갖는데 집중했다. 스스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 부분들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밝혔다.

민경현은 인천에서 두 번째 시즌인 올해 작년보다 더욱 안정감 있고 여유 있는 플레이로 프로 무대에 녹아들고 모습이었다. 프로 첫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에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냐고 물었다. 민경현은 "작년에는 첫 시즌이다 보니 경기 템포나 경합하는 부분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해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경험이 쌓여서 체력적인 부분도 보완되었고 상황마다 판단력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했다.



매서운 인천의 행보, 팀이 끈끈하게 뭉쳐서 가능했다

인천은 7월부터 공식전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로 역대급 시기를 보내며 리그 6위까지 올라왔다. 팀이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민경현은 "감독님, 코치님이 상대 팀의 전술에 대해 많이 분석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팀원들끼리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팀이 끈끈하게 하나로 뭉쳐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경현은 최근 대구, 광주와의 리그 경기에서 김도혁과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김도혁과 호흡이 잘 맞는 이유를 물었다. 민경현은 "도혁이 형이랑 작년보다 같은 라인에서 많이 뛰었는데 그만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어

떻게 해야 더 좋은지 많이 조언해 주신다. 밖에서 보면 혼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서로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며 맞춰가다 보니 호흡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비결을 밝혔다.



1년 만에 다시 단 태극마크, 꼭 최종 명단에 들겠다

민경현은 인천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선 대비 최종 훈련 U-22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3월 U-23 국내 소집훈련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창원에서 훈련 후 아시안컵 예선을 치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경현에게 대표팀 복귀 소감을 물었다.

"인천에서 제가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감독님, 코치님, 팀원 형들, 구단 프런트 분들, 팬분들까지 모두의 응원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대표팀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어 민경현은 "대표팀에 가서 인천이라는 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모습 보여서 아시안컵 예선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시아로 가는 인천, 하나로 뭉쳐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인천은 지난 22일 2023-24 ACL PO에서 베트남의 하이퐁FC를 상대로 연장 혈투 끝에 3-1 승리를 거두며 본선에 올랐다. 민경현은 아쉽게도 이날 출전하지 못했다. "구단 첫 ACL 무대인만큼 플레이오프를 정말 뛰고 싶었지만 이전 경기에서 머리를 부딪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형들이 뛰는 모습을 보니 아쉬운 마음이 컸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인천은 지난 24일 열린 조 추첨식에서 요

코하마 마리노스(일본), 산둥 타이산(중국), 카야FC(필리핀)와 같은 조에 배정되었다. 모두 쉽지 않은 상대들이다. 민경현에게 각오를 물었다. "첫 ACL이기에 무조건 두지 있게 경쟁해서 팬분들에게 실망시키드리고 싶지 않다. 좋은 경기 보여드리고 싶다. 팀원 형들이랑 다 같이 뭉쳐서 인천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팬분들의 목소리가 한 발짝 더 뛸 수 있게 만든다

인천은 스플릿 라운드까지 5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파이널 A와 파이널 B의 경계선에서 매 라운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경현은 "꼭 파이널 A에 오르고 싶다. 더 나아가 지난 시즌 하지 못했던 리그 3위까지 올라가고 싶다"라며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어떻게 치르고 리그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팀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상위권에 오를 것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개인 기록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물었다. "이번 시즌에 지금까지 도움 1개를 기록했는데 항상 시즌 시작하면서 도움 5개를 만들자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도움을 4개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민경현은 "항상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다 같이 뛰어서 응원도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민경현은 "경기장에서 팬분들의 목소리가 힘들어도 한 발짝 더 뛰게 만드는 것 같다. 앞으로도 경기장에 더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2023/24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집중 탐구!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가 2023/24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으로 간다.

베트남 하이퐁FC와의 플레이오프에서 3-1로 승리하며 창단 처음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인천은 9월부터 3개월간 펼쳐질 조별리그에 나선다.

인천은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 산둥 타이산(중국), 카야 FC 일로일로(필리핀)과 함께 G조로 편성되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인천이 조별리그에서 상대할 3팀에 관해 알아본다.



카야 FC 일로일로

카야 FC 일로일로는 필리핀 축구의 신흥 1강 팀이다. 필리핀 최상위 축구 리그인 필리핀 풋볼 리그는 2017년 창설되었다. 과거에 유나이티드 풋볼 리그가 존재했지만, 수도 마닐라를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의 세미 프로 리그였다. 지금은 이 리그가 폐지되고, 필리핀 풋볼 리그로 대체되었다.

카야는 전신 리그에서는 우승 없이 준우승만 두 번 했다. 그러나 필리핀 풋볼 리그가 발족한 이후에는 원년인 2017년을 제외하면 항상 2위 이내로 시즌을 마쳤다. 특히, 가장 최근 시즌이었던 2022/23시즌에는 창단 첫 리그 우승에 성공했다. 지난 5년간 컵대회에서도 우승 2번, 준우승 2번을 이뤄내며 필리핀 축구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객관적으로 카야는 요코하마, 산둥보다 전력이 약한 팀이다. 카야가 속한 필리핀 리그는 2022/23시즌에 7팀밖에 참가하지 않은 규모가 작은 리그다. 심지어 그중 2팀은 시즌 중에 리그를 탈퇴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리그의 규모가 작고, 수준이 낮다. 인천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상대다.

카야는 이번이 통산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다. 카야는 2021년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참가했다. 당시 카야는 6전 6패 2득점 16실점을 기록하며 조 최하위로 탈락했다. AFC 챔피언스리그의 하위 대회 AFC 컵 본선에는 4차례 진출했지만, 토너먼트 진출은 첫 출전이었던 2016년이 유일하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인천의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번째 상대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다. 요코하마는 이번이 통산 여섯 번째 챔피언스리그 본선이다. 요코하마는 2022년 J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진출했다. 올 시즌도 리그 1위를 달리면서 J리그 최강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코하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격'이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를 이끌고 있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018년부터 2021년 여름까지 3년 반 동안 요코하마를 지휘했다. 이 시기에 요코하마는 공격이라는 콘셉트를 확실히 주입받았다. 그 색깔은 현재 지휘봉을 잡고 있는 케빈 머스캣 감독 체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요코하마는 리그 우승을 한 지난 시즌에 34경기 70골을 기록하며 득점도 리그 1위를 차지했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팀이라 봐도 무방하다.

요코하마는 세 명의 브라질 선수가 공격진을 이루고 있다. 에우베르-안데르손 로페즈-안 마테우스로 구성된 스리톱은 올 시즌 J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조합이다. 여기서 주목할 선수는 중앙 공격수 완델손이다. 2018년 '안델손'이라는 이름으로 FC 서울에서 뛰었던 선수다. K리그에서는 6득점으로 부진했고, 태도 문제까지 겹쳐 빛을 보지 못했지만, J리그에서는 매 시즌 득점왕 경쟁을 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리그 득점 순위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활약이 좋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 2선 공격수 남태희가 가세했다. A매치 54경기 7골을 기록한 남태희는 11년간의 중동 생활을 마치고, 올여름 일본 요코하마에 합류했다. 남태희의 무기는 드리블 돌파다. 브라질 공격수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다. 게다가, 남태희는 K리그를 잘 아는 선수다. 인천과의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요코하마의 전술적 특징은 풀백이 중원으로 가담하는 일명 '인버티드 풀백'이다. 일본에서는 요코하마의 이 전술을 '가짜 풀백'이라고 부른다. 측면 수비수가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중원과 하프스페이스를 적극 공략한다는 데에서 붙여졌다. 요코하마전에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양 풀백을 주목해야 한다. 주전 풀백 나가토 카츠야와 마츠바라 켄은 수비 이상으로 공격력이 좋은 선수다. 나가토는 전 소속팀에서 J리그 도움 1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킥이 좋다. 마츠바라는 중거리 슛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다. 요코하마의 공격진만큼 측면 수비수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

요코하마는 인천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팀이다. 인연의 연결고리는 인천의 고유상철 명예감독이다. 유상철 감독은 요코하마 선수로 J리그 우승을 두번이나 경험했던 우승 멤버다. 요코하마는 유상철 감독과의 추억을 잊지 않고 있다. 요코하마 팬들은 유상철 감독이 투병 중일 때, 패유를 비는 현수막을 걸었고, 지금도 매년 기일마다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유상철 감독은 인천의 감독으로 요코하마와 맞붙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유상철 감독은 이 대진이 성사되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것이다.



산둥 타이산

인천은 중국의 산둥 타이산과 한 조가 되었다. 산둥은 챔피언스리그 통산 11번 본선 진출을 이룬 중국의 전통적인 강팀이다. 산둥은 중국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이번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직행했다. 리그에서는 1위 우한 쑤저와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2위를 했다. 2021년에는 리그와 컵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20년대 중국 축구를 대표하는 팀이다.

지난 3년간 중국 팀들은 챔피언스리그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챔피언스리그와 리그 일정이 겹쳤고, 코로나19로 중국의 출입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팀들은 2군 혹은 어린 선수들 위주의 선수단으로 나섰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부터는 다시 중국 팀들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둥 역시 베스트 멤버로 이번 대회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산둥은 전, 후반기가 크게 다른 팀이다. 산둥은 개막 첫 7경기에서 1승 4무 2패로 리그 16개 팀 중 11위에 그쳤다. 하오웨이 감독을 비롯한 일부 팀 구성원이 승부조작 관련으로 당국에 체포되는 악재 탓에 산둥이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강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는 완벽히 달라졌다. 최강희 감독 체제에서 치른 리그 16경기 중 패배는 단 2경기다. 최강희 감독 부임 후, 10승 4무 2패로 상승세를 탄 산둥은 어느덧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7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선두 상하이 하이강과 격차는 10점 이상으로 벌어져 있어 리그 우승은 쉽지 않지만, 최근 흐름이 좋아 2위 수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산둥의 키플레이어는 마루앙 펠라이니다.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인 펠라이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끈 선수다. 전성기 시절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지금은 194cm의 장신을 활용하는 최전방 공격수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올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펠라이니다.

인천과 산둥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은 2018년 월드컵 휴식기에 중국 전지훈련을 진행했었다. 당시 인천은 중국 현지에서 산둥과 두 차례 연습경기를 치러 1승 1무를 기록했다. 산둥에게 좋은 기억을 가진 인천이지만, 인천과 산둥 모두 그때와는 아주 다른 팀이 되었다. 공식경기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산둥과의 경기는 지난 연습경기와는 아예 다른 승부가 될 것이다.

IUFC BLUE MARKET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및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 블루마켓 매장 위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ATE-WG7 옆
기존 블루마켓 2층 (구 스카이라운지)

※기존 블루마켓 입구로 입장 후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블루마켓으로 이동

🕒 운영 시간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 ~ 경기 종료 후 30분

※경기 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 매장 이용 가능)

www.incheonutdmarket.com

온라인 블루마켓은 365일 OPEN

📷 @incheonutdmarket

💬 @IUFC 블루마켓



2023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 카카오TV / 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YouTube



kakao tv



NAVER TV